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구축 방안

-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 김금남 원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Character Archive

- Case Study of Geum-nam Kim as the head of Christian Donggwangwon Monastery -

김 희 숙(Hee-Sook Kim)*

장 우 권(Woo-Kwon Ch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김금남 인물 선정 이유와 기대효과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김금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 2.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 1.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 분석 |
| 3. 선행 연구 | 2. 김금남 생애사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3. 김금남 관련 기록 조사 목록 |
| 1. 인물 아카이브 개념 및 특징 | 4. 김금남 기록의 분류 및 배치 |
| 2. 인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생애사 연구 | V. 결론 및 제언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 3대 원장 김금남을 사례로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개발을 위한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김금남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인물의 선정 이유와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이후 생존 인물이기에 몇 번의 인터뷰를 통해 생애사를 녹취하고 활자로 기록했다. 90세가 넘는 기억 퇴행으로 사건의 시간이 뒤섞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몇 십 년을 동고동락한 동광원 수녀와, 동광원 하위 단위인 벽제 '귀일원' 소장의 자문을 구해 정확성을 검증 받았다. 2)관련된 기록의 내용과 소장처를 파악하여, 파악된 기록을 재분류하고 재배치해서 전체 콘텐츠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콘텐츠는 기록 콘텐츠와 해설 콘텐츠로 구분하여 해당 영역과 소장처별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키워드: 김금남, 디지털 인물아카이브, 기독교 동광원, 기독교 수도회, 맨발의 성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person archives with the case of Geum-nam Kim, the third-generation head of the Christian Donggwangwon Monastery Society. The step-by-step strategy for building digital character archives for Geum-nam Kim is as follows. 1)The reason and expected effect of the character selection are analyzed. Since he was a survivor, he has recorded and typed his life history through several interviews. Considering that the memory of Geum-nam Kim, who is over 90 years old, could be mixed up in the time of the incident, the advice of Sister Donggwangwon and Maj. Gen. Gyuillwon, the lower unit of Donggwangwon, was obtained and verified for accuracy. 2)The contents of the records and the place of collection were identified, and the total content composition(proposal) was presented by reclassifying and relocating the records identified records. The entire contents are divided into recorded contents and explanatory contents, so that they can be linked to each area and collection.

Keywords: Geum-nam Kim, Digital character archive, Christian donggwangwon, Christian monastery, Barefoot saint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anulse3@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9년 11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12월 1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469-491,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12.46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43조 ①에서“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민간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설사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되더라도 보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민간기록물 특히 일반적인 개인기록 등은 국가차원에서 보존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살아가면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엮어나간다. 따라서 한 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 중 그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거나 반추할 수 있는 자료들 또는 사장되거나 분실의 우려가 있는 귀한 자료들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보존하고 공유하여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실존 인물인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원장 김금남을 사례로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김금남은 우리나라 기독교 수도원 수녀 중 한 분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도원의 역할을 제외한 탓에 천주교와는 달리 수도원이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수한 예에 속하는 동광원 3대 원장 김금남 아카이브 구축은 종교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더불어 관심 있는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김금남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2010년대까지 변화해 온 사회의 일부분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특히 김금남 아카이브는 우리나라 기독교 수도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이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공공기록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김금남 인물 아카이브 개발을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금남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생생한 경험을 녹취한 후 활자로 재생한다. 둘째, 김금남에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조사해서 인터뷰 내용들을 수정하고 보완한 후, 보완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는 문헌 연구와 기록 조사 및 김금남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조언을 통해 수정·보완해 간다. 90이 넘는 김금남의 기억력의 퇴행

으로 그 동안 경험한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지 않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몇 십 년을 함께 살아온 수도원 수녀들과 동광원 분원인 벽제 귀일원 소장 등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일은 정확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셋째, 선행연구와 사례 분석을 기초로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김금남의 생애를 분석한다. 넷째, 김금남 인물 아카이브 구축 전략(안)을 수립한다.

김금남 아카이브는 김금남과의 인터뷰 내용을 위주로 하며, 기존의 자료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맞추어보고 수정하며 보완해가는 자료로 사용한다.

3. 선행 연구

인물 아카이브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인물 아카이브 설립이 필요한 이유와 구축 방안을 제시한 연구에서 최영주(2005)는 개인 기록물이 메뉴스크립트 관리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대학기록관에 소장된 개인기록물들을 활동에 따라 정리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주제별 정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민지은(2015)은 지역 역사인물 아카이브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지역 역사인물의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 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으로 전호순(2012)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특정 인물을 사례로 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혜림(2010)은 개인 기록이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점을 보완해서 분산된 기록을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연결시켰다. 김길태(2017)는 특정 인물 관련 기록 소장처와 연계하여 분류한 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선희(2013)는 소장처별 리드파일을 작성 한 다음 파악한 기록을 활동영역별로 연계시켜 1차적 자료만이 아닌 2차적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지역인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인물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 연구는 종교사적 의미와 신앙인으로서 서민들의 삶에 많은 기여를 한 기독교 수도원장의 생애사의 기록이다. 이에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생존 수녀들이 세상을 떠나면 역사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의 역사를 김금남 생애와 함께 조명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결과 수도원이 거의 없는 기독교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우리나라 기독교의 한축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더불어 격변기인 일제강점기 말과 해방 전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상과 우리나라 고아원의 발달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인물 아카이브 개념 및 특징

아카이브(archive)의 사전적 의미는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으로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이다. 또한 아카이브는 기록보관소, 기록물 보관소, 기록보존소, 공문서관 등에서 기록물을 모아둔 곳을 가리키며, 역사적 기록물 자체를 의미한다(Craven 2008). 즉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모아놓은 것이기도 하고,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기술하여 보관·보존하는 장소이다(민지은 2015).

개인 아카이브는 “특정인물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해당 인물 및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며 대중들에게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기록관리이다.”(임진희 2013). 또한 “개인에 대한 일종의 영구 보존 기록의 집합체”이다(박선희 2013)). 즉 인물 아카이브는 특정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간 또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 아카이브는 인물이 여러 단체와 기관 등에서 수행한 공적인 부분과 사적으로 활동하면서 생산해 낸 기록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인물이 남긴 기록물의 수집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록과는 달리 인물 아카이브는 정형화된 형식을 갖춰 생산되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의 유형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각 기록물의 내용과 구조 및 맥락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일반적인 인물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적용 가능한 수집 전략과 방안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유형별 특징은 개인의 특징에 따라 수집 대상의 차이를 기반으로 작품·주제형, 특정기간형, 생애·활동형으로 분류한다(표 1)(김혜림 2010).

〈표 1〉 인물 아카이브 수집 범위와 그 특징

유형	특징
작품·주제형	· 작품으로 유명해진 인물 · 주된 수집 범위가 해당 작품 컬렉션과 더불어 사적인 기록과 연구 기록을 수집, 보존 · 해당 작품이 속해 있는 학문에 대한 연구를 지원
특정기간형	· 특정 기간에 대한 주어진 지위와 관련된 인물 ·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된 인물 · 특정 기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개인 기록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보존, 관리
생애·활동형	· 전(全) 생애가 중요한 인물 · 해당 인물의 전체적인 삶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컬렉션인 경우

또한 인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주요 주체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한다(표 2)(임진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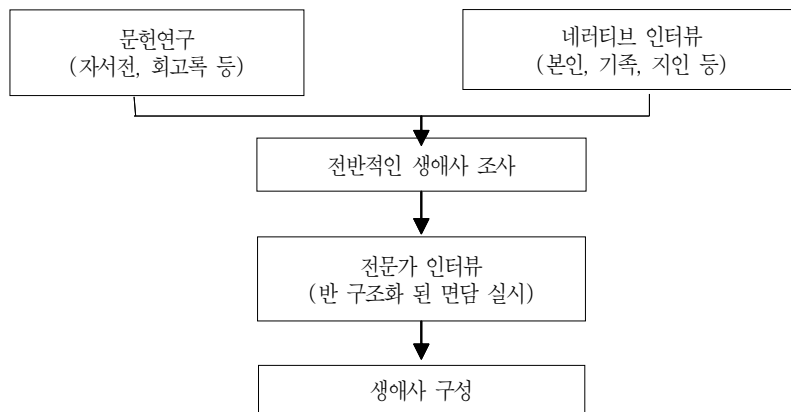
〈표 2〉 인물 아카이브 구축 대상

유형	주요 주체	구축 대상
일상연구형 아카이브	· 기록관 · 연구기관	· 사회를 기록화하기 위해 다큐멘테이션 전략에 의거하여 다수의 평범한 개인들의 기록을 수집 · 중앙 집중적인 저장소에 저장 · 사회 발전 단계나 동시대 역사적 가치에 따라 분류하고 해석
유명인 기념형 아카이브	· 기관 · 단체 · 개인	· 개인의 노력과 업적, 전환점을 보여줄 기록을 수집 · 후속세대에 교훈적, 감동적 가치 · 교육콘텐츠로 활용
일반인 개인 아카이브	· 자기 자신 · 가족	· 개인적 필요에 따라 아카이빙 · PC, 집, 일터에 분산적으로 소재

2. 인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생애사 연구

생애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물의 생애는 획일적인 규칙에 따라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이 어울려 개인마다 고유의 특성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애사 연구방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박선희 2013).



〈그림 1〉 생애사(生涯史) 연구 방법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위한 전문가 선정에서 제기되어야 할 질문으로는 ① 관련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② (정보 제공자 중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③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④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다(Gordon 1987; 박선희 2013).

인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아카이브 대상 인물에 대한 전(全) 생애의

고찰이다. 인물의 생애사 연구가 잘 수행되어야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물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가 있다.

Ⅲ. 김금남 인물 선정 이유와 기대효과

대부분의 개인은 각자 속한 가정과 몇 겹의 사회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 거대한 시간의 흐름이라는 톱니바퀴와 맞물려 돌아간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지라도 개인의 삶은 공동체의 산물이요 역사의 일부이다. 격변기에 있는 개인의 삶은 더욱 사회의 흐름에 따라 조성되고 변화되고 물처럼 유유히 흐르며 여러 곡선을 빚어낸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로 김금남을 선정하였고, 김금남을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금남은 종교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1896년 조불통상수호조약으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최초의 수도원인 가실성당(구 낙산성당)이 들어선 이후, 천주교에는 많은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반면 기독교는 몇 개의 수도원이 있다. 동광원, 디아코니아 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수도원이다. 기독교 수도원은 세도 약하고 수도원 공동체 속에서 일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자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연로한 수도원 수녀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칫 수도원의 명맥이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 이에 '동광원'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지켜본 산 증인 김금남을 조명하여,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의 성립 및 발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종교사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둘째, 김금남의 고아원 보모 경험이다. 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아원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발발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다. 이때 광주로 온 고아들을 모아 그들을 돌보기 시작한 곳이 바로 동광원이다. 고아들과 함께 방림동 다리 밑과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던 김금남의 삶에는 우리나라 초창기 고아원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다.

셋째, 그 당시 동광원 수녀들이 펼쳤던 사회활동 영역이다. 김금남은 다른 수녀들과 함께 간호사 교육을 거쳐 기독교병원에서 간호사로 활동하였다. 그 당시 나이가 어린 수녀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훗날 나라의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김금남 외 수녀들은 고아원 인가를 받은 귀일원에서 쫓겨났다. 이처럼 동광원은 개인의 수양만이 아니라 고아원과 간호사 등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배움을 몸소 실천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김금남의 생애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일부분을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중반부인 1928년에 태어난 김금남은 태평양 전쟁과 해방,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였다. 그의 생애사는 격변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김금남의 삶은 가정과 사회의 굴레 속에서 개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성장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롤 모델을 제시해 준다. 김금남에게 있어서 자아실현은 영적인

순결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방황과 고민, 공동체 속에서의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 등을 통해 우리는 인간 김금남을 만날 수 있으며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덩으로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금남을 통해 동광원의 주역들과 오늘날 김금남을 있게 한 이현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현필 선생님은 김금남의 스승으로, 김금남은 스승 이현필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다. 또한 김금남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이모님들도 모두 이현필 선생님의 제자로 동광원 수녀들이다. 이현필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는 남원 운교리에 자리한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에는 26명의 수녀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도회 아랫동네에는 남반인 5분이 기거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했던 초창기의 생활 방식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금남은 고아원 교사와 간호사로, 이현필 선생님 제자로 평생을 살아왔으며, 특히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의 3대 원장으로 기독교 수도원의 발전에 자양분이었다. 따라서 김금남 아카이브 구축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잠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인물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한 개인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연구할 수 있다. 인물을 토대로 역사를 이해하는 인물학습에서, 인물의 성격과 고뇌와 업적을 파악할 수 있으며, 크게는 인물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과 인생철학 및 윤리적 가치관 등을 직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둘째, 김금남 아카이브는 근현대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로부터 의인 열사가 끊이지 않는 남원에 교회가 들어선 것은 1908년경이었다. 김금남은 어려서부터 언니들을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이현필 선생님께 성경공부를 배우던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났다. 순결 생활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금남의 아카이브는 이후 이단으로 몰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셋째, 동광원에서 파생된 광주 봉선동 귀일원과 계명산 벽제 귀일원을 링크로 연결하여, 기독교 수도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요긴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V. 김금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 분석

가. 발단

1944년 이현필 선생님은 김금남의 아버지 김학선의 도움으로 지리산 자락 갈촌리 위쪽 서리내 산에 터전을 마련한다. 이때에 남원교회에서 이단으로 몰린 믿음의 어머니들이 7,8명의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4호)

딸을 데리고 와서 이현필 선생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라고 맡기고 갔으며, 이것이 동광원의 시작이다. 화순군 도암면 도구밖골에서의 수양을 끝낸 김금남은 이듬해인 1946년에 동광원 공동체에 합류한다.

나. 발전 과정

동광원의 발전 과정은 김금남의 신앙생활과 맥을 함께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후 김금남 생애사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표 3〉 동광원 발전 과정

연도	내용	소재지
1944년	· 서리내 산 터전에서 3-4명의 제자가 모여 자급자족 생활 시작함	남원
1947년	· 광주 YMCA로 이사	광주
1948년	· 여순사건으로 교아가 많아지자 고아들을 불러 모음 · 100여 명의 동광원 식구들은 Y에서 나와 양림동 다리 밑으로 이사 · 이후 방림동 뱀나무골에 터를 잡고 고아, 걸인, 환자 등 오갈 곳 없는 이들을 돌봄	
1950년	· 광주를 중심으로 유지 70인이 모여 고아원 '동광원'을 설립함. 당시 YMCA 총무였던 정인세 선생이 초대 원장을 맡음	
1951년	· 이현필 선생님은 '귀일원'이라는 이름을 짓고, 본격적인 고아 사업 펼침 · 김금남 외 큰 언니들은 간호사 교육을 거쳐 기독교병원에서 청소와 매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로 근무함	
1954년	· 고아원 인가 · 김금남 이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동광원 식구들은 쫓겨나서 무등산과 경기도 벽제 등으로 흩어짐	
1964년	· 제자를 간호하다 전염되어 후두결핵을 앓던 이현필 선생님이 영면함	
1965년	· 재단법인 귀일원을 설립 · 초대 원장 정인세, 초대 이사장 오복환 장로 취임	
1970년대	· 정인세 이하 어른들의 노력으로 전북 남원 대산면 운교리에 동광원 터를 마련함	남원
2004년	· 남원 본원에 이현필 기념관을 건축함	
2005년	· 4월 17일에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로 명칭을 개명함	
2019년	· 현재 6동의 건물이 있음	

다. 신조와 생활원칙

동광원 수녀들은 이현필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조와 생활원칙을 지켰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동료들간의 화목, 안녕과 평안을 가져오는 일이었다. 신조에는 이현필 선생님의 만인에 대한 평등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은 동광원 신조이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은총으로 순결하게 산다.

둘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한다.

셋째, 지향이 같은 형제자매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한다.

넷째, 모든 교과를 초월해서 담이 없이 산다.

다섯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본다.

이현필 선생님은 신조와 함께 생활원칙을 정해 놓았다.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생활원칙에는 가난하게, 부지런하게, 자급자족 등 공동체를 지금까지 존속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다섯 가지의 생활원칙이다.

하나. 정절을 지킬 것(純潔), 둘. 가난하게 살 것(淸貧), 셋. 순명할 것(順命), 넷. 깨끗한 사랑으로 교체할 것, 다섯. 부지런히 일해서 자급자족 할 것.

라. 의의

한국 개신교 역사상 처음 세워진 기독교 수도원인 동광원은 ‘맨발의 성자’로 알려진 이현필 선생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이다. 이현필 선생님의 삶은 크게 네 영역(사상, 수도, 나눔과 섬김, 교육)에서 조명해볼 수 있다. 이현필 선생님 생존 시에는 네 영역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현필 선생님이 소천하고 난 후에 제자들은 그 중의 한 영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펼쳐오고 있다.

동광원은 수도 생활 중심지이다. 현재 3대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 원장 김금남은 항상 주님께로 다가가고자 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던 이현필 선생님 선생의 모습을 닮아 가고자 노력한다. 언니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일을 하면서 동광원 공동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뜻이 있는 신앙인들이 동광원을 찾아와 신앙과 사상으로 기독교를 넘어서 타종교를 인정하고 수용(만법귀일)한 이현필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대안적 삶을 꿈꾸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마. 한계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의 전통은 수도적·자족적이다. 따라서 나머지 영역 즉 이현필 선생님의 사상에 대한 조명이나 계승을 가능케 할 교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현필 선생님은 몸소 제자들 각자에게 맞는, 개별학습 방식으로 제자훈련을 실행 하였다. 또 간디 공동체 같은 공동체도 꿈을 꾸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김금남은 스승 이현필 선생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2. 김금남 생애사 분석

가. 연표 작성

(1) 탄생

1928년 1월 29일 전라북도 남원 금동에서, 김금남(1928-)은 김해김씨 김학선 아버지와 강남순 어머니 사이에서 2남 5녀 중 4째로 태어났다. 그 당시 남원에 갓 들어선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자라나던 김금남은 어려서부터 언니들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자녀들과 김금남의 막내 이모가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본 강남순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훗날 ‘갈보리 어머니’로 호칭되는 강남순 어머니는 김금남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분 중의 한 분이였다.

(2) 학창시절(초등학교)

9살이 되던 해에 김금남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남원용성국민학교에 입학했다. 김금남은 공부에 무척 재미있었다. 쌀장사하는 아버지 덕분에 굶주리지 않고 큰 어려움도 없었던 까닭도 있었지만,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나씩 알아간다는 게 그렇게 신이 날 수 없었다.

고학년이 되었을 때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김금남은 선생님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나무 열매를 따러 다니며 보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가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5학년이 되자 막연한 생각은 큰 질문을 만들어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어떤 삶이 진정한 삶이며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 온 마음이 질문으로 가득 찰 때, 5학년 3학기 국어책에서 “수행자와 라세스”라는 이야기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허무를 깨닫고 수행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여 집을 나섰다. 며칠을 걸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수행자는 신의 음성을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에 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뜬 수행자는 느린 노래처럼 낮고도 그윽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던 신의 목소리는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노래의 후렴부가 궁금하여 안달이 난 수행자는 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었고, 끝내는 마른 나무 가지처럼 말라 가게 되었을 때, 무서운 모습을 한 라세스가 나타나 끝부분을 들려주는 대신 목숨을 원하였다. 일편단심 신의 음성이 듣고 싶었던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라세스는 끝부분을 들려주었다.

“이 세상은 헛된 것, 허무한 것이니라. 고운 꽃도 머지않아 지나니 내가 있는 세상, 무엇인들 영원할까? 덧없어라. 어차피 죽어야 할 이내 몸을 버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이 끝나자 수행자는 기쁘게 라세스에게 목숨을 던졌고, 순간 라세스는 신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수행자는 원하던 신의 목소리의 끝부분과 함께 덤으로 신의 얼굴까지 보게 된 영광을 얻게 되었다. (김금남 2019, 3-4)

라세스를 단 한 번에 전체를 읽어버린 김금남은 수행자처럼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가물었던 땅이 빗줄기를 만난 듯 암울했던 마음에 한 줄기 서광이 비쳐오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바치고 인류를 구원했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겠구나.' 라고 손을 굳게 쥐었다.

젊은 시절에는 나이팅게일처럼 팔 없는 이에게 팔이 되어주고 발 없는 자에게 발이 되어주는 간호사로 살다가, 나이 들면 신의 음성을 들은 수행자처럼 살고 싶었다. 그래서 김금남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간호사의 꿈을 버려야만 했다.

(3) 직장생활

1941년(15세) 국민학교 졸업식 날, 김금남의 진로를 알아보겠다고 약속한 일본 선생님은 그해 5월에 남원우체국을 소개시켜 주었다. 김금남이 남원 우체국에서 교환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15세 김금남(1941)은 우체국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대상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몇 년 후 혼기가 짝 찬 김금남은 집과 주변에서 결혼 권유를 수없이 받았다. 이에 김금남은 결혼과 수행자의 길을 고민하면서 새벽기도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다니면 잡아가는 시대였지만, 일생을 걸고서 기도를 시작한 김금남으로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다.

1945년(18세) 8월에 해방이 찾아왔다. 해방이 되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남원 우체국은 한국인이 우체국장이었다. 그런데 우체국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우체국장을 작대기로 두들겨 뒀다. 어제까지는 깍듯이 인사하면서 서로 웃는 얼굴로 예의를 차렸는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 모습을 본 김금남은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실망하며 절망에 빠져 버렸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4) 신앙의 길

며칠 후 사표를 낸 김금남은 약 30리 밖에 있는 지리산 자락 갈촌리로, 먼저 가신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 곳은 김금남의 숙부가 교사 월급으로 사 놓은 산지기 집이 있었다. 김금남은 어머니와 함께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한 무리의 남원교회 여성 신도들이 갈촌리로 찾아왔다. 순결 생활을 지향하는 이현필 선생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이단으로 내몰렸기 때문이었다. 김금남은 일요일이면 찾아오는 남원교회 여성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100일 기도가 끝나기 3일 전에 이현필 선생님이 찾아왔다. 18세 김금남은 기둥 뒤에 숨어서 남녀유별을 강조하는 이현필 선생님께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김금남은 이현필 선생님과 수레기 어머니를 쫓아 제자의 길로 들어섰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이현필 선생님처럼 신발을 벗고 눈길을 따라 걷는 김금남은 무척 힘들고 어려웠지

만, 마음 한 편에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황홀한 경험을 맛보았다.

김금남은 동서남북 높은 산이 병풍같이 둘러 쳐져 있고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산새소리뿐인 도구박골(화순 화학산 청소골 꼭골) 마당바위에서 여성 홀로 7개월 동안 두려움과 막막함에 울며 지내다가 끝내는 절망과 싸워 이겨내고는, 이듬해인 1946년(19세)에 동광원 모태가 되는 서리내 터전으로 찾아갔다. 서리내에는 7,8명의 어린 소녀들이 있었다.

(5) YMCA와 동광원

1948년(21세) 이른 봄에 김금남은 형제 31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광주 YMCA로 이사를 왔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밭농사와 베를 짜고, 남성들은 성냥공장을 경영하였다.

10월이 되고 여순반란 사건이 터지자 고아와 과부가 생겨났다. 이현필 선생님은 고아들을 불러들였고, 식구들은 금방 1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Y 회관에 기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사가 생겨나자 동광원 식구들은 양림동 다리 밑에 거적을 두르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동광원 식구들은 서로 붙어서 추운 날을 견디며 탁발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다리 밑 생활을 접게 된 동광원 식구들은 다행히 시청에서 제공해준 지산동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일본인이 살다가 떠난 그 집은 아주 크고 대지도 넓어서 100여 명이 살고도 남을 정도였다. 고아들에게는 시청에서 구호물자와 양식을 지원해 주었다. 동광원 식구들은 고아들의 물자와 자신들의 먹거리를 철저히 구분하여 생활했다.

1950년(23세) 정월에 교계의 어른들이 힘을 합쳐 ‘동광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워, Y 정인세 총무가 초대 원장이 되었다. 이후 ‘동광원’은 이현필 선생님을 따르는 식구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이름으로 굳어졌다.

당해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현필 선생님은 광주 수피아 여자고등학교 교장인 루트(Miss Florence Root : 유화례) 선교사가 고아들과 병약자를 돌보다가 피신할 기회를 놓쳤다는 연락을 받고는, 김금남에게 커다란 여성 한복을 짓게 만들어서 동광원 대숲에 숨어 있는 유화례 선교사에게 전달한 후 김금남에게 유 선교사의 보호를 부탁했다.

7월 23일 광주까지 북한군이 들어오게 되자 동광원 식구들 150여 명은 하룻밤 새에 12분 대로 나누어 화순군 도암면 청소골로 이동하였다. 김금남은 유화례 선교사와 함께 중촌부락 길갯집의 뒷방에 숨어 지냈다. 그러나 그곳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소반바위 동굴 속으로 유화례 선교사를 피신시켰다가, 소반바위 서쪽 절벽 속의 우거진 숲속에 파묻혀 있는 각시바위 암굴 속으로 피신시켰다. 이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유 선교사를 무사히 미군 품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전쟁 중에 동광원 식구들 중 김금남의 이모 강차남 등 6명의 순교자가 생겨났다.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하자 동광원은 고아들을 모아 돌보았다. 한때 600명의 고아들이 머무르기도 했던 동광원은 전쟁 후 시국이 좋아지자 흠을 잡기 시작한 무리들에 의해 결국 시청으로부터 해산 명을 받았다. 해체 후 동광원 식구들은 허탈해 마지않았는데, 곧 다

시 찾아오는 아이들로 인해 동광원은 금방 60-70명의 아이들이 불어났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동광원 식구들에게 다행히 봉선동 밤나무골 감나무 동산에서 살도록 배려해준 부부 덕분에 동광원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곳이 지금의 봉선동 ‘귀일원’ 자리다.

(6) 김금남 삶의 정리

방림동 다리 밑에 막에 치고 살 때에 폐병에 걸린 제자를 간호하다가 후두결핵이 걸린 이현필 선생님의 병이 중해져 기독교병원에 입원을 했다. 김금남은 이현필 선생님의 곁에서 간호를 했다. 그곳에서 이현필 선생님은 기독교병원 원장과 상의한 후, 김금남과 몇 명의 큰언니들에게 간호 실습생을 권유했다. 김금남은 어릴 때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기쁨에 열심히 간호교육에 임하였고, 실습 후 기독교병원에서 봉사하였다. 한편 후배들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금남은 3,40대에 심적 방황을 했다.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 사는 형제들의 행태에 실망하고, 스승 이현필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김금남은 여러 방법을 써 보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주민등록증을 태워버리고 산속에 있는 빈 무덤을 찾아가 3일 동안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그때에 큰 깨달음을 얻은 김금남은 동광원으로 내려왔고, 50대 이후에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1964년(37세)이 되자 한 달이 넘도록 신년예배를 인도한 이현필 선생님은 벽제 동광원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더구나 그 동안 국가법이 바뀌어서 ‘귀일원’은 인가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후배들은 귀일원에 남고, 무자격자인 김금남과 선배들은 쫓겨나고 말았다. 김금남은 할머니 1반과 영아들 1반을 이끌고 무등산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70년대(50대) 후반에 정인세 원장은 귀일원 이모님들 퇴임 후의 노후대책을 고민하던 중에, 남원 대산면 운교리 마을에 기거하는 김교님의 도움으로 야산 3만평을 구입했다. 그곳이 바로 지금 남원 동광원의 태 자리이다.

야산 3만 평 개발은 지금까지의 고생과는 비교도 안 될 고통의 크기였다. 때문에 김금남과 청년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주님의 뜻이라면 한 발 가고 죽더라도 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한 청년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강화선 큰 이모님을 기독교 병원차에 모시고 남원 운교리로 향했다. 운교리에 도착한 일행은 사다리를 놓혀서 아픈 이모님을 묶은 다음, 한 사람은 앞에서 낮으로 풀을 베어 길을 내고 나머지 형제는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그로부터 3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중턱에 있는 움막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동광원 형제들은 4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밭을 일구었다. 11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해가 내리찍는 한낮에는 다시 예배를 드렸다. 오후 4시 30분이면 저녁을 먹고 해가 질 때까지 또 다시 일을 했다. 날마다 전심을 다해 일을 하다 보니 동광원은 모양새

를 갖추어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2005년(78세) 4월 17일에 자급자족하는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를 완성할 수 있었다.

김금남은 2014년(87세)에 파킨스 병 진단을 받았지만, 92세가 된 지금까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수도자로서 수행자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표 4〉 김금남의 연대표

구분	연도 (나이)	일어난 일	
		개인	사회
출생	1928.2.29	· 전북 남원군 금동에서 김해김씨 김학선 아버지와 강남순 어머니 사이에서 2남 5녀 7 형제 중 4째로 태어남	일제강점기
어린 시절	1936(9세)	· 둘째 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함	
국민학교 시절	1937(10세)	· 남원 용성국민학교에 입학함	
	1941(15세)	· 졸업반이 되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교과서에 나온 나이팅게일처럼 간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함	태평양 전쟁 발발
	1943.3.25.(16세)	· 용성국민학교 졸업. ·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간호학교를 지망했으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반대로 꺾임. · 5월 일본 선생님의 추천으로 남원 우체국에 교환원으로 취직함	
10대	1944(17세)	· 우체국 근무로 인해 대신마이(정신대, 위안부) 공출에서 면제 받음 · 울드미스인 금남에게 여기저기서 청혼이 들어오자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함 · 기도 끝에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하였고, 여자가 혼자 살려면 방어진 여사처럼 고아를 데려와 키우자고 생각함	동광원 시작
	1945.8.15(18세)	· 해방이 되자 사람들은 우체국장을 구타하는 등 잠시 동안 세상이 무법천지가 됨. 이에 금남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욱 싫어짐	해방
10대	1946(19세)	· 그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남. · 금남은 우체국에 사표를 내고 갈촌리(갈보리)로 100일 수양을 떠난 어머니를 찾아감 · 그 당시 남원교회에 다니던 많은 여인들이 이단으로 몰려 쫓겨나와, 금남 모녀가 있는 갈촌리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 사람들은 금남의 어머니를 갈보리 어머니라고 부름 · 훗날 ‘맨발의 성자’로 불리우는 이현필 선생님과 청년 한 명이 갈촌리로 찾아옴. 이현필 선생님은 19일 정도 성경공부를 지도해 줌 · 눈이 내리던 날, 금남은 수레기 어머니와 이현필 선생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나섬. 그 때 맨발로 걷는 스승 이현필 선생님을 따라 제자 된 도리를 지키기 위한 금남은 자신도 맨발로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스승을 따라 눈길을 걸어감 · 7개월 동안 동서남북 높은 산이 병풍같이 둘러 쳐져 있고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산새소리뿐인 도구막골(화순 화학산 청소골 꼭골) 마당바위에서 수행함 · 1944년 이현필 선생님은 지리산 갈촌리 위쪽 서리내 산에 터전을 마련하였는데, 믿음의 어머니들이 7-8명의 딸을 데려와서 이현필 선생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라고 맡기고 감. 이것이 동광원의 시작이 되었으며, 김금남은 1946년에 동광원 공동체에 합류함	동광원에 합류
	20대	1947(20세)	· 김금남은 이현필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움. 나이가 찬 김금남과 처녀들은 창뒤 또는 기둥으로 가려진 곳에 앉고, 어머니와 어린 제자는 앞에 앉음 · 김금남은 이현필 선생님을 따라 31명 일행과 함께 광주 YMCA로 이사 옴 · 여성은 전담에서 발동사를 지으며 여성은 베를 짜고, 남성은 성냥공장을 운영함.

구분	연도 (나이)	일어난 일	
		개인	사회
	1948 (2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순사건으로 고아와 과부가 생겨나자 이현필 선생님은 고아들을 불러옴. 그러자 금방 식구들이 100여명으로 늘어남 · 거지 문제로 다름이 일어나자 동광원 식구들은 Y를 떠나 양림동 다리 밑에 거적을 두르고 생활함. 	여순사건
	1950 (2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이 광주로 진입할 즈음, 동광원 식구들은 화순군 도암면 화학산 청소골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함 · 이현필 선생님의 유년 주일학교 제자였던 방안식의 어머니로부터, 광주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하였는데 광주 수피아 여자고등학교 교장인 루트(Miss Florence Root : 유화례)선교사가 고아들과 병약자를 돌보다가 피신할 기회를 놓쳤다는 연락을 받음 · 유화례 선교사가 동광원으로 피난 옴 · 이현필 선생님은 금남에게 조금 큰 여자 한복 한 벌을 만들게 한 후 대숲에 숨어있는 유화례 선교사에게 금남을 소개함 · 동광원 식구들 150여 명은 하룻밤 새에 12분대로 나누어 화순군 도암면 청소골로 이동함 · 금남의 각별한 동행 아래 유화례 선교사는 중촌부락 길갓집의 뒷방에 숨어 지냄 · 그곳의 안전이 흔들리자 정인세, 조용택, 방안식, 김금남, 기타 2명 총 8명이 소반바위 동굴 속으로 유화례 선교사를 피신시켰다가, 소반바위 서쪽 절벽 속의 우거진 숲속에 파묻혀 있는 각시바위 암굴 속으로 피신시킴 · 이현필 선생님, 정인세, 김준호, 김금남, 유화례 선교사는 화순 이양 가까운 강정으로 갔다가, 한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정씨 4형제 중 정일채씨 집 다락에 숨음 · 방안에는 김금남, 방안 벽장에는 유화례 선교사, 건너방에는 정인세가 환자로 누웠으며, 두 청년은 주인집의 머슴으로 위장하여 마당에서 주인과 함께 새끼를 꼬다가 듣는 대로 마을을 순찰하며 살림 · 그러던 어느 날 인민군 복장의 군인들이 들이닥쳐 정인세, 김금남, 유화례 등 모두를 묶고 차에 태워감. 부산에 피신해 있던 미첼 선교사를 통해 유화례 선교사 소식을 들은 맥아더 장군이 유 선교사를 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신임 경찰서장은 유 선교사를 숨겨준 집이 차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구하려 온 것이었음. 유 선교사는 무사히 미군 품으로 돌아감 · 전쟁 중에 동광원 식구들 중 김금남의 강차남 이모 등 6명의 순교자가 생겨남 	한국전쟁 발발
	1951 (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하자 본격적인 고아 돌보기 사업을 추진함 · 1월로 접어들면서 전쟁 피난민들이 비교적 사회가 안전한 광주로 몰려들기 시작하므로 동광원의 고아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됨 · ‘귀일원’ 조직 	귀일원 조직
	1953 (2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현필 선생님은 폐병에 걸린 제자를 간호하다가 후두결핵에 감염됨 	휴전
	1954 (2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광원에 고아원 인가가 나와서 지산동 일본인 집에서 살게 됨 · 민원으로 인해 전남도청 직원들은 동광원 원아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전라남도 각 지방의 고아원으로 분산배치 시키고, 그 동안 비축해 둔 모든 물자와 양식들도 모두 가져가버림 · 동광원은 간판을 내리고 지산동에서 방립동 밤나무골로 옮겨옴 · 흩어졌던 아들이 매일 서너 명씩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 예전의 숫자 로 금방 붙어남. 배급은 중단되고, 동광원 숫자는 불어나서 참담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음 	고아원 해체
	1956 (2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현필 선생님이 후두결핵이 심해져 기독교 병원에 입원하자, 김금남은 병원에서 이현필 선생님의 수발을 함 · 이현필 선생님은 기독교병원 원장과 상의한 후, 금남과 몇 명의 큰언니들에게 간호 실습생을 권유함. 금남은 어릴 때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기쁨에 열심히 간호교육에 임하였고, 실습 후 기독교병원에서 봉사함. 후배들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함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4호)

구분	연도 (나이)	일어난 일	
		개인	사회
30대		· 그 동안 국가법이 바뀌어서 '귀일원'은 인가를 낼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후배들은 귀일원에 남고, 무자격자인 금남과 선배들은 쫓겨남 · 동광원 식구들은 전국 몇 곳으로 흩어짐. 김금남은 할머니 1반과 영아들 1반을 이끌고 무등산으로 들어감	귀일원 인가 남원
		· 아버지 생전에 어머니는 금남의 동생 셋을 데리고 동광원 본원인 남원으로 들어옴 ·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짐. 이현필 선생님은 금남에게 아버지의 수중을 들고 오라고 함. 며칠 동안 계속 잠만 자던 아버지는 금남의 간호를 받으며 영면함	
	1964 (37세)	· 무등산 거적에서 생활하던 이현필 선생님은 방담동으로 내려와 생활하다가 결핵이 깊어져서 다시 기독교병원에 입원함 · 퇴원한 이현필 선생님은 기독교병원에서 보내준 우수수 가루 몇 포대를 팔아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2,000원씩 나누어줌. 그러고는 서울 벽계 본원으로 올라가겠다고 함. 그 몸으로 못 가신다고 안 된다고 말리던 금남은 이현필 선생님에게 차비하고 올라가시라고 받은 돈 2,000원을 건네 드림 · 서울로 올라가서 계명산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이현필 선생님은 그곳에서 소천함. 그날 저녁 금남의 꿈에 찾아옴. 서울로 올라온 금남은 유명모 선생 등 제자와 친구 등이 모인 가운데 이현필 선생님의 장례를 치름	
	1965 (38세)	· 2월 24일 정인세 선생이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귀일원을 설립함. · 정인세 초대 원장, 오복환 장로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재단법인 귀일원 설립
	1970년대 후반	· 김교님, 정인세, 오복환, 김준호 등이 지금의 동광원 장소인 남원 대신면 운교리에 3만 평의 산을 구함	
		·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청년들에게 '3만평이니까 개간을 하라'고 함. 청년들 깜짝 놀라서 아무도 나서지 않음 · 금남과 청년들은 기도예 전념함. 주님의 뜻이라면 한 발 가고 죽더라도 가겠다는 각오를 다짐. 기독교 병원차로 강화선 이모님을 모시고 남원 운교리로 출발함	남원 동광원 시작
50대	· 운교리 산 밑에서 나무를 쪼어 간이 매트리스를 만든 다음 병자를 싣고 길도 없는 산 중턱까지 올라감. 산지기 막 1개와 방 2칸에서 살기 시작함		
50대	· 금남은 50대가 되어서야 모든 정육이 다 놓아졌다는 고백을 함		
70대	2004 (77세)	· 남원 본원에 33명이 살고 있으며, 88명이 그곳에 잠들어 있음 · 남원 본원에 이현필 선생님 기념관을 건축함	
	2005 (78세)	· 4월 17일 동광원을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로 변경함	명칭 변경
80대	2014 (87세)	· 파킨스 병 진단 받음	
	2015 (88세)	· 8월 어느 날 발을 매다가 힘이 쑥 빠지는 것을 느낀 다음부터 뜨거운 햇빛을 볼 수 없음. 금남은 다른 형제들에게 한낮에는 발일을 하지 말라고 당부함	
90대	2019 (92세)	· 현재 방 26개에 여반 25분, 아랫동네에는 남반 5분이 기거함	

나. 가족 관계 분석

김금남은 김해김씨 김학선 아버지와 강남순 어머니 사이에서 2남 5녀 중 4째로 태어났다. 교육열이 높았던 아버지 김학선은 여자 아이들은 학교에 잘 보내지 않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김금남을 초등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했다. 김학선은 쌀장사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가산

이 넉넉하였다.

오빠와 두 명의 언니는 김금남이 성인이 되기 전에 혼인을 하였다. 성인이 된 김금남이 귀 일원으로 들어오고, 이후 강남순 어머니는 김금남의 세 여동생인 김정순, 김순남, 김은남을 데리고 동광원으로 들어와 함께 살았다. 고향 집에 홀로 남아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어느 날 김금남과 어머니가 남원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집을 싸가지고 와 전해주고는 돌아갔다.

함께 살던 식구들이 모두 안락한 집을 떠나서 힘들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아버지는 이현필 선생님과 오장로님 그리고 서집사님을 만나보았다. 그들에게서 집 식구가 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을 듣고 서리내 골짜기에 터를 준비해 주었다. 성격이 고운 아버지는 믿음 생활을 하는 며느리에게 성경과 찬송가를 사 오라고 부탁하고, 어느 날은 동광원을 찾아와 가족들이 생활하는 모습도 살펴보고 돌아갔다.

말년에 아버지는 잠풍이 들었다. 말 그대로 잠만 자는 병이었다. 이현필 선생님의 배려로 아버지의 병 수발을 나온 김금남은 오빠네 부부와 함께 편안하게 떠나시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렸다.

어머니 강남순은 김학선과 결혼 후 10여 년 동안 한복에 흰 두루마리를 입고 갓을 갖춰 여러 제사를 지내는 유교집안에서 살았다. 너무 형식적이고 번거로운 제례의식에 힘들어 하던 중에 여동생 강부남의 강권과 김금남 외 자녀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즐겁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어머니는 ‘갈보리 어머니’로 지칭되었다.

1남 4녀 중 셋째인 어머니 강남순은 위로 오빠와 큰 언니 강화선 그리고 여동생 강차남과 강부남이 있었다. 김금남의 외조부는 신실한 불교 신자여서, 김금남이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 가면 스님들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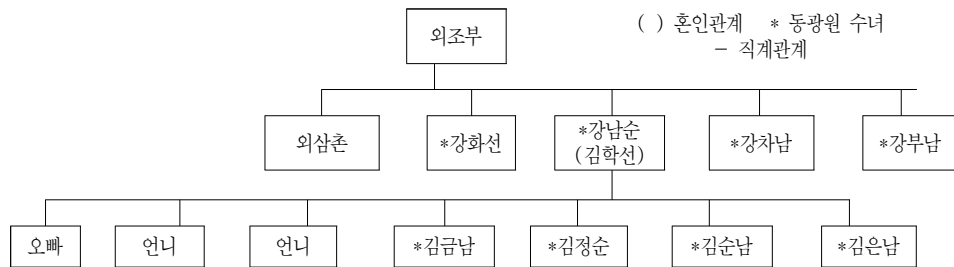
집의 전통에 따라 큰 딸 강화선은 열심히 절에 다녔다. 그런데 내노라 하는 부자에게 시집을 간 동생 강차남이 정신 질환을 앓게 되었다. 강화선은 동생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으나 차도를 보지 못했다. 이때 강차남은 막내 강부남의 권유로 교회에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웬일인지 정신병이 차차 좋아졌다. 강화선은 동생을 돌보기 위해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훗날에는 이현필 선생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 강차남과 함께 동광원으로 들어와 생활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화순으로 피난을 했던 동광원 식구들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쫓기는 인민군들의 거친 행동에 신경을 쓰며 스스로를 조심하였다. 그때에 산 속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이현필 선생님은 동광원 식구들을 마을로 내려 보내고 화순군 도암면 산에 남았다. 이에 강화선과 강차남은 서울어머니라고 불리는 분과 함께 이현필 선생님의 뒷바라지를 위해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고 서로 우기다가, 강차남과 서울어머니가 남고 강화선은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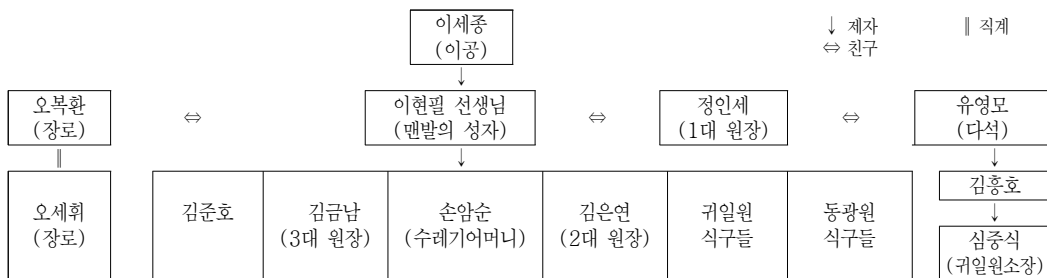
어느 날 강차남과 서울어머니에게 나타난 인민군은 이현필 선생님의 거처를 물었고, 대답

을 하지 않는 두 분과 그들을 말리는 문공 분까지 끌고 가 세 분은 순교를 했다.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던 이현필 선생님은 평생을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며 살았다.

84세까지도 장작을 쪼개며 마치 40대처럼 건강하던 강화선이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졌다. 그때부터 큰 이모 강화선의 수종을 들던 김금남은 남원 운교리 3만 평의 야산으로 이사 오는 날, 청년들과 함께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큰 이모 강화선을 사다리에 꿰뚫어 어깨에 매고, 한 사람이 앞에서 낮으로 풀을 베는 길을 따라 3시간 동안 야산 중턱으로 올라왔다. 평소에도 남의 인격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았던 강화선은 마지막에 음식을 하다가 7일째 되던 아침에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강화선이 쓰러지고 김금남의 수종을 받던 7년만이었다. 2019년 현재 김금남 원장만 생존해 있다.



<그림 2> 김금남 가계도



<그림 3>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 가계도

3. 김금남 관련 기록 조사 목록

간단한 성경 말씀을 정리한 내용과 간증을 기록한 자료 정도 외에 스스로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김금남은 주변인들의 권유에 마음을 내어 2019년 하반기에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자서전을 출판할 예정이다.

김금남은 스승 이현필 선생님을 기록한 책에 자주 등장한다. 동광원 모태인 서리내 공동체보다 더 일찍 이현필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의 길을 걸었으며, 이 선생님 생전에는 옆에서 말없이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이다.

이현필 선생님의 기록 자료는 적은 양이지만, 광주 봉선동 귀일원 안에 있는 이현필 기념관과 남원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에 이현필 기념관 그리고 계명산 벽제 귀일원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며 소장처별 기록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5〉 김금남 관련 기록 소장처

소장처	기록 유형	비고
광주 봉선동 귀일원	· 단행본 · 이미지 자료 · 신문기사	이현필 기념관 거의 모든 자료 보관
남원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	· 단행본 · 이미지 자료 · 세미나 자료 · 유적지 · 녹화 자료(예정)	이현필 기념관 이현필 기념탑 동광원 식구들 묘 기도터
계명산 벽제 귀일원	· 귀일원 · 세미나 자료 · 유적지	기도터

4. 김금남 기록의 분류 및 배치

김금남 아카이브는 기록 콘텐츠와 해설 콘텐츠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해설 콘텐츠에는 김금남을 소개하는 글과 활동영역을 담았다. 해설 콘텐츠는 기록 콘텐츠로 링크되어 연계되는 구조를 택하였다(그림 4).

김금남 인물 소개에서는 김금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김금남의 생애사와 믿음의 관계를 기술해 준다. 위의 <표 3>과 <그림 2>, <그림 3>을 함께 제시해주고 관련 기록 콘텐츠가 링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점을 표시해 준다. 인물을 개괄할 때는 김금남의 이미지 사진과 남원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 전경 및 이현필 기념탑, 광주 봉선동 귀일원에 보관중인 이현필 기념관 자료 등 동광원 유적지 사진과 김금남 이미지 자료를 함께 보여주고 해당 내용에 연계되도록 참고정보원의 목차 정보를 같이 제시한다.

생애주기별 활동영역에서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수녀원 시절 전과 수녀원 시절로 구분하고, 이용자가 손쉽게 그 당시 활동했던 모습과 세세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 지점을 표시해 준다.

기록 소장처별 영역은 먼저 집합적으로 소장처를 보여주고, 소장처별 소장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목차정보를 제공해준다. 주요 기록 유형별에서는 1차 자료 외에 김금남의 녹화 자료, 신문기사 등의 2차 자료 목록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김금남 아카이브			
해설 콘텐츠		기록 콘텐츠	
인물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개괄 · 생애사 · 가족 관계도 · 신앙 계보 · 기록 콘텐츠 연결 지점 표시 	링크 ↔	사진 및 박물관 이미지 활용 ✓ 기록처별 연결지점 표시 ✓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 기록소장처로 연결
생애주기별 활동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시절 · 국민학교 시절 · 수녀원 시절 전 · 수녀원 시절 	링크 ↔	활동영역별 세부 영역 제시 · 어린 시절 - 주일학교 · 국민학교 시절 - 꿈 - 진로 · 수녀원 시절 전 - 남원 우체국 근무 · 수녀원 시절 - 갈촌리 생활 : 수행자 - 귀일원 생활 : 고아원, 간호사 -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 생활 : 수행자 ✓ 기록별 연결 지점 표시 ✓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 기록 면으로 연결
기록 소장처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처별 집합적 기술 · 소장 현황 제시 	링크 ↔	소장처 검색 기능 제시 ✓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
주요 기록 유형별	기록 유형 제시 · 단행본 · 세미나 자료 · 녹화 자료 · 신문기사	링크 ↔	유형별 기록 제시 ✓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 ✓ 해설 콘텐츠 연결 지점 표시

<그림 4> 김금남 아카이브 전체 콘텐츠 구성(안)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김금남을 대상으로 인물 아카이브 개발을 위한 구축과정을 수립하였다. 전체적으로 김금남 인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의 선정 배경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종교사적으로 김금남이 지니는 가치를 살펴보고, 김금남 인물 아카이브가 구축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에 대해 기술했다.

둘째, 김금남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생애사는 인물 아카이브 구축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김금남은 생존 인물이기 때문에 몇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녹취하였고, 메모한 자료와 녹취

자료를 참고하여 김금남의 생애를 연구하였다. 또한 김금남에 관한 문헌 연구와 기록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90세가 넘는 김금남의 기억의 퇴행을 감안하여 기독교 동광원 수도회 수녀들과 벽제 귀일원 소장의 자문을 구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 정확한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목록을 작성하였다.

셋째, 작성한 기록의 분류 및 배치를 다시 정하여 전체 콘텐츠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콘텐츠는 해설과 기록 콘텐츠로 구분한 다음 해당 영역끼리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인물 기록은 표준 프로세스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개개의 삶이 처한 상황이 달라 삶의 유형이 다르고 형태도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이다. 다만 김금남 인물 아카이브가 특수 분야에 종사하거나 독특한 삶을 산 인물 아카이브를 설계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금남. 2019 출판 예정.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했다』. 동광원 수도회.
- 김길태. 2017. 『김대건 신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전공.
- 김정순. 미상. 『이현필 선생의 말씀』. 동광원심온회.
- 김혜림. 2010. 『개인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연구 : 이승만 기록 통합 검색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제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남원교회 역사. 최초부지 <<http://blog.daum.net/noinbokji/6811580>> [인용. 2019. 11. 8].
- 민지은. 2015. 『지역 역사인물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박선희. 2013.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설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초대총장 윤인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 심명열. 2015. 『이공 성자와 여인들』. 정자나무.
- 심중식. 2007. 『동광원 사람들』. 사색.
- 엄두섭. 1992. 『맨발의 성자 이현필』. 은성.
- 이연창. 2007. 『인물 기록관 구축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경영정보학전공.
-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현필, 엄두섭 엮음. 1993. 『순결의 길 초월의 길』. 은성.
- 임진희. 2013. 개인아카이브 & 개인 디지털아카이빙의 특성과 과제. 『제33회 명지대 실버랩 콜로

키움』.

전호순. 2012. 『대중가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조용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차중순. 2010. 『성자 이현필을 찾아서』. 대동문화재단.

최영주. 2005. 『대학기록관의 개인기록관리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Craven, Louise ed. 2008. *What is Archives? Cultur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A Reader*. Hampshire: Ashgate Publishing Limited.

Gorde, Raymond L. 1987. *Interviewing Strategies, techniques and tactics*. Chicago, Illinois: The Dorsey Press.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 Jong-Soon. 2010. *Find the saint, Lee Hyun-pil*. Daedong Cultural Foundation.

Choi, Young-Ju. 2005. *A study of the documentation of personal document in a university archive*.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i University.

History of Namwon Church. *First site*. <<http://blog.daum.net/noinbokji/6811580>> [cited. 2019. 11. 8].

Jeon, Ho-Soon. 2012.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popular singer digital archives—Case study of Cho, Yong-Ohil*.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Kim, Geum-Nam. 2019 to be published. *I decided to live a different life from the rest of the world*. Donggwangwon Monastery.

Kim, Hye-Lim. 2010.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Personal Archives*.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i University.

Kim, Jung-Soon. Unknown. *Lee Hyun-pil's words*. Donggwangwon Simwonhae.

Kim, Kil-Tae. 2017.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Father Andrew Kim Taegon Digital Archive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Lee, Eun-Hwa. 2009. *A Study on Personal Record Collections at Archives—Analysis of Bae Min Su Collection*.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i University.

Lee, Hyun-pil & Uhm, Doo-Sub ed. 1993. *A path of chastity on the grasslands*. Eunsung.

- Min, Jee-Eun. 2015. *A Study on Establishing an Archive of Local Historical Figure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 Park, Sun-Hee. 2013.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Personal Digital Archives : Case Study of In-gu, Yoon as the first presi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sis.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Shim, Myung-Yeol. 2015. *Saints and women of E-Gong*. Spermia Japonica.
- Shim, Jung-Sik. 2007. *People in Donggwangwon*. Contemplation.
- Uhm, Doo-Sub. 1992. *Barefoot saint Lee Hyun-pil*. Eunsung.
- Yi, Yeon-Chang. 2007.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personal achive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 Yim, Jin-Hee, 2013.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Personal Archive & Personal Digital Archiving*. The 33rd Silver Lab Colloquium of Myongi University.